

IDB-NIA 중남미 공무원 초청연수단 서울시 방문 국제협력관 인사 말씀

- 일시 : 6.19.(화) 15:30 (`10)
- 장소 :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

- 안녕하십니까?
- 서울시 국제협력관 강필영입니다.
- 중남미 국가에서 전자정부 및 ICT를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서울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- 아울러 연수를 주관하는 미주개발은행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- 한국의 전자정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 전자정부 정책 및 우수서비스 강의, 지능형 전자정부 방향 논의, 스마트 시티 및 전자정부 현장체험, 전자정부 수출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방식의 밀도 있는 교육일정을 소화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
-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서울시의 교통정보시스템과 전자민원 원스톱 서비스 ‘응답소’를 이해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아시다시피 1950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서울은 반세기만에 세계적인 첨단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.
- 이러한 압축 성장과 그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 그리고 해결의 경험은 다른 도시들에게 좋은 교훈과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.
- 이미 청렴건설행정시스템 UN공공행정상 수상, 시민참여형 도시재생모델 싱가포르 리관유상 수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.

-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세계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.
- 서울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전 세계 62개 도시와 자매-우호 도시를 맺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연방특구, 부에노스아이레스, 상파울루, 보고타, 파나마시티, 멕시코시티가 서울시의 자매우호 도시입니다.
- 또한 서울시는 이외에도 도시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‘도시문제 솔루션’을 공유하고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교통, 전자정부, 상수도 분야 등 58개 서울시 우수 정책을 30개국 42개 도시에 공유,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.
- 예를 들어 콜롬비아 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활용 도시방재시스템, 니카라과 마나과의 교통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, 페루 찬찬마요의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은 서울시의 경험을 반영한 훌륭한 정책공유 사례입니다.
- 여러분들에게 서울시의 많은 매력과 우수한 정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짧아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.
- 다시한번 서울시와 정책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추진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- 아쉬움을 간직하고 돌아가면 다시 서울로 오실 날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.
- 서울에 대한 아쉬움을 간직한 여러분을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- 감사합니다.